

모두 발언

2024. 11. 7. (목)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룸(5층)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오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 대표님과 단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님과

이재근 (국민은행) 행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켜주고 계신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추구하는

중소기업금융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II 중소기업금융 관련 과제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을 보면서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은 확대*되는 반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 부동산 금융 : '15말 1,443조원 → '24.6말 2,882조원 (출처: 한국은행)

나아가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은행 중기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 : ('15말) 66.7 → ('22말) 79.2 → ('24.9말) 80.7

이러한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므로
우리 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장 중소기업 여러분께서도
주주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장 단계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 유인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혹여 극심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대환대출 지원상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폐업시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일시상환 의무가 발생 → 가게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성실상환시 금리감면 등 제공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앞에 놓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보다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기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Ⅲ 맺음말

참석자 여러분,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 중소기업에 내재된 잠재력이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역동성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